

“공감과 연대... 詩로 긍정과 희망 회복했으면”

광주 출신 조은운 시인, 첫 시집 ‘햇볕 쬐기’ 발간

“한국 현대문학 대표시인 박용철은 닮고 싶은 시인”

2019년 문화일보신춘 등단...문학동인 ‘공통점’ 활동



조은운 시인

시인은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인 문우들의 도움이 컸다. 광주에서 ‘공통점’이라는 문학동인 활동을 했다. “신춘문예를 준비하고 또 시집을 엮는 동안 문우들로부터 많은 힘을 얻었다”는 말에서 서로 ‘햇볕 쬐기’를 추구했던 문정들의 따뜻한 마음이 읽힌다.

“한창 열심히 활동할 때는 일주일마다 창작시를 가져와 몇 시간에 걸쳐 합평하고 책 얘기를 나눴지요. 학교(조선대 문창과)에서 합평 수업을 할 때면 지나치게 날 선 비판으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서로의 작품을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암묵적인 규칙을 정했어요.”

2016년부터 시작한 공통점은 벌써 6년이 넘게 별 탈 없이 함께오고 있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는 독립출판과 문학예술 프로젝트 기획도 함께 하고 있다.

그는 올해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구생에 선정돼 다음 작품활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쓰게 될 작품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각각으로 쓰고 싶다”고 한다. 무엇보다 동인들과 함께 추구하는 ‘같은 통점이 되는’ 문학을 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 ‘플라멩코 추는 남자’ 31일까지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인 ‘혼불의 메아리’가 오는 31일까지 독후감을 모집한다.

(사)혼불문학과 최명희 문학관 등이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인문학적 감성을 지닌 독자를 발굴하고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제11회 수상작인 허태연 작가의 ‘플라멩코 추는 남자’ 단 한 편을 대상으로 한다. 버킷리스트를 채우며 새로운 관계 맺기를 배우는 60대 남성용 다른 이 작품은 ‘코로나19 시국에 대한 면밀한 반응과 가족에 대한 위로가 돋보인다’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원고 분량은 A4용지 2장~7장(200자 원고지 15매~50매)이며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jeonjuhonbul@nate.com)이나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29)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명에 200만 원, 우수상 2명에 50만 원이 수여되며, 각각 30명에게 혼불문학상 수상작품 전집(10권)을 선물한다. 수상작품 발표는 5월 중순이며 혼불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문의 063-284-057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감성적 추상회화... 순수한 본성으로 회귀

김종일 교수 개인전, 4월 30일까지 화순 태곳미술관

“다채로운 추상의 세계로의 초대.”

평생 추상 미술에 매진하며 지역 추상미술계를 꽃피워 지고 있는 김종일(전남대 명예교수) 화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화순 태곳미술관(화순읍 내평길 39-1)이 김종일 화백 초대전 ‘순수회로의 회귀(Return to innocence)’를 통해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과 공간을 구성하는 디자인적 요소가 두드러진 김화백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지난 50여년간 추상회화를 중심으로 한 외길을 걸어온 김화백은 개인 작업활동과 함께 현대미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호남 화단에서 선후배, 동료들과 추상작가 그룹 ‘에보끄회’를 결성하고 이끌며 추상미술의 꽃을 피웠다.

김화백의 작업 세계는 세월이 흐르며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구상 작품을 그리던 초기 회화 시대를 넘어 1970년대 흑색시대, 1980년 빛과 음양의 조형미 시대를 거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1990년대에는 추상회화와 오방색의 한국 전통이 만난 ‘생성’ 시리즈 등을 통해 추상회화와 한국 전통을 결합시키는 과감한 시도로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제5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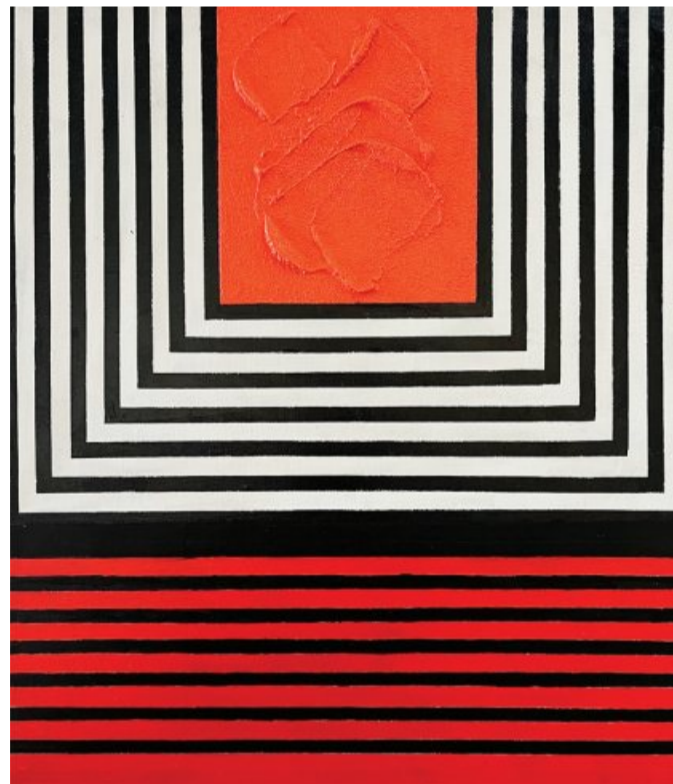
대표하는 그림들로 대상의 속성과 존재들과의 상상, 조화와 생명력을 보여준다. ‘순수회로의 회귀’ 시리즈는 군더더기를 모두 환원시킨 존재, 그 자체의 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 순수한 본성회로의 귀환을 뜻한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오브제와 치밀하게 계산된 색채가 어우러져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낸다. 강렬한 원색과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이루어져 그의 작품은 독특한 리듬감을 부여하기도 하고 작시 현상이 느끼게 하며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한다. 또 함축적이면서도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관람객들에게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각형은 각기 다른 면적과 색채를 통한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화면에 개성을 만들어낸다. 특히 화폭을 장악하고 있는 다채로운 색감은 화려한 색채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

지난 2017년 ‘도 갤러리’로 문을 연 태곳미술관은 올 초 등록사립 미술관으로 재개관, 지역 작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초대전을 진행 중이다. 직장인 관람객들의 전시 관람 편의를 위해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일·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문의 061-375-155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Return to innocence_10,

‘미혼남녀 결혼·출산 인식’ 광주여성가족재단 발간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최근 젠더 인포그래픽스 제11호 ‘광주지역 2030 미혼남녀의 결혼·출산 인식’(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젠더 인포그래픽스는 결혼·출산의 핵심세대인 지역 2030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전통적 역할규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 결과 2030 미혼남녀의 전통적 결혼관은 약화되었고 결혼의 구속과 책임에 대한 부담은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여성과 미혼남성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의향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의향이 없는 경제적 요인으로 미혼여성은 ‘취업’, 미혼남성은 ‘소득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으로 미혼여성은 ‘가부장적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혼남성은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관련 주요 현안 및 연구결과 시각화하는 젠더 인포그래픽스를 연 6회 발간하고 있으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문의 062-670-054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또 다른 세상의 창, 베네치아’ 음악산책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30일 11시...김이곤 해설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이 올해 첫 공연 ‘또 다른 세상의 창, 베네치아’로 시작을 알린다.

11시 음악산책은 평소 문화생활을 쉽게 즐기지 못했던 시민을 위한 공연으로 김이곤이 해설자로 나서 국내외 활발한 연주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흥미로운 클래식 세계로 안내한다.

이번 콘서트는 베네치아의 역사, 문화, 미술, 음악 등이 총망라된 여행 인문학 콘서트다. 혼족 집합부터 화려한 색채의 베네치아 화파 탄생, ‘사계’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생애,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 속 유대인 이야기, 마네와 모네 등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베니스 비엔날레와 베니스 영화제를 비롯해 리알토 다리, 두칼레 궁전, 대운하 등 여러 명소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이곤

이날 공연에서는 솔리스 앙상블의 연주로 비발디의 ‘사계’를 감상할 수 있다. 척박한 도시를 모티브로 한 ‘겨울’ 2, 3악장과 베네치아 화파의 색채와 연계해서 들어보는 ‘봄’ 1, 2 악장을 만날 수 있다. 카니발과 가면 등 자유와 화려함으로 물든 풍정에 비추어 연주될 ‘여름’ 2, 3악장, 베네치아의 풍요로움을 전달해줄 ‘가을’ 1, 3악장도 들려준다.

11시 음악산책 다음 공연은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로 오는 4월27일 열린다.

전석 1만원. 문예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크 예매.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 Fun 8’

아시아문화전당재단, 14~28일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2년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 Fun 8(이하 하우펀)’과 연계한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하우펀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함께 꾸리는 초록빛 세상’을 주제로 5월 5일부터 8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지역 예술작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축제로 운영된다.

이번 지역협력 프로그램 공모분야는 2개 분야 4종이다. 환경, 새활용, 자원순환을 소재로 한 어린이·가족 대상 문화예술교육과 온라인 영상 교육콘텐츠(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이 그것.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및 교육의 기획·운영 역할을 갖춘 단체는 참여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개인·단체는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하우펀 세부 프로그램으로 포함돼 행사 기간 동안 전당 내 어린이작가실습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점조합연합 ‘심야책방’ 모집

폐점 시간을 활용해 서점별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를 진행할 서점을 모집한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2022 심야책방’ 1차 운영 서점 70곳을 모집한다.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 진행되는 심야책방은 서점별로 4회씩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선정된 70개 서점은 31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2차 심야책방은 8~11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진행 예정이며 신청은 7월 중 공지를 예정이다. 서점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정체됐던 다양한 문화활동이 심야책방을 통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서점이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거점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